

후보 조기경선 '부실 검증' 우려 크다

민주당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이 곧 본선 가능성 당원명부 유출 등 압초 많아 민의 반영된 검증 절차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자칫 경선 후보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철저한 검증 절차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점과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한 경찰 수사 등의 '압초'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압도적인 당 지지율만 믿고 경선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 기회를 주지 않다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가운데 단수·전략공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후보를 '컷오프(경선 배제) 후 원상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광주와 서울 등의 일부 후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결선 투표 및 1·2차 경선을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또 남북정상 회담 이전인 다음달 22일까지 경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본선에 나설 후보를 서둘러 결정해 '남북정상회담 호재' 속에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복안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과열 양상도 '조기 경선'의 배경으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등 선거 분위기가 유리하게 돌아 가고 있는 상황에 자칫 '집안 싸움'으로 비춰져 '반(反) 민주당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광역단체장 선거와 달리 '경선이 곧 본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광주·전남지역에는 후보들 간 경쟁도 치열해 후보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조기 경선 과정을 위한 일방적인 중앙당의 컷오프가 아니라 지역 유권자들의 민의(民意)가 충분히 반영된 후보 검증 절차와 정책 검증 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방송사에서 진행된 정책 토론회에 일부 예비후보들이 빠진 채 진행된 정책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광주, 야구 열기 속으로



주말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2018 개막 시리즈가 펼쳐졌다. 봄을 기다렸던 야구팬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들 연속 챔피언스필드의 2만500석이 모두 팔려나가는 등 주말 광주는 야구 열기로 뜨거웠다. 개막전에서 타선의 집중력 부족으로 4-5 역전패를 당했던 KIA는 25일 4개의 홈런 포함 장타 16안타를 터트리면서 14-1 대승을 신고했다.

▶관련기사 20면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 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 *광주일고(28회), 서울대 법대(83학번) 졸업
- *사법시험 합격(31회), 사법연수원 수료(21기)
- *광주지방법원 및 순천지원 판사
- *광주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 목포지원장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목포시, 광주동구, 해남군, 고흥군 선거관리위원장

변호사 박강희 올림

- ▶업무개시 : 2018. 3. 5(월)
- ▶개업장소 : 광주 동구 동영로 106, 3층 (지산동, 우성빌딩)
- ▶개업소연 : 2018. 3. 30(금) 오후 5시부터
- ▶전화 : 062)228-3500
- ▶팩스 : 062)228-3501

또한, 광주시장 경선의 경우 '당원 명부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우려되고 있다. 조기 경선 이후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 경선에 자질이 벗어날 경우 중앙당이 감당해야 할 부분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후보자가 적은 지역과 광주·전남에 동일한 경선률을 적용하기보다는 적어도 광주·전남에서는 후보들 간 정책 토론회 등 철저한 후보 검증 절차를 거친 뒤 경선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결과, 광주에서는 윤

장현 광주시장 등 7명, 전남에서는 신정훈 전 국회의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수는 광주가 가장 많았고, 전남이 제일 적었다. 전국적으로는 47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전남지사 선거전은 신 전 비서관 외에도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지역위원장을 사퇴 시점 논란을 빚고 있고, 장 전 교육감은 민주당 입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휴일 댈친 미세먼치 공포 ▶7면

금호타이어 운명의 일주일 ▶14면

동네책방-도교의 카모메복스 ▶18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알립니다

예술 꿈나무들의 큰 잔치

제 63회 호남예술제 전국대회

접수 음악·무용·국악 4월 4일(수)~11일(수)
미술·작문 5월 14일(월)~16일(수)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인 '제63회 호남예술제'가 오는 4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우치공원 등에서 열립니다.

올해 창사 66주년을 맞은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는 예술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수많은 예술가들을 길러낸 대회입니다.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 참가자격 : 국내 거주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경연기간 : 4월 19일(목)~5월 29일(화)
- 참가부문 :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 접수방법 : 방문신청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우편신청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담당자앞
인터넷신청 -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후 확정 4월 16일(월) 발표)
- 시상 : 우수학교상, 우수지도상 수여(예정)
개인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단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문의 : 062-220-0541
- 주최 : 광주일보·아시아문화
- 후원 : 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목포시·나주시

광주일보

검찰, MB 오늘 첫 옥중조사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이르면 26일 첫 조사에 나선다. 혐의를 전 면 부인하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2일 밤 11시57분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후 주말을 거치며 그간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신변을 정리하고 구치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수감 직후 곧바로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은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면 4월10일까지가 기한인 만큼 충분한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방식은 이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하거나 수사팀이 구치소로 찾아가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출장 방문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경호·경비 절차상의 문제와 조사의 효율성, 조사시간 확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5차례의 방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양식 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 드립니다.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배우는 비용이 걱정입니다.

배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귀여·귀촌해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여·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 받을 수 있습니다.



큰칭거미새우 양식에 나선 오수형 (38)

강원도 홍천 홍천왕새우 대표.
"이론교육부터 실습, 양식장 견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는 9월 홍천지역축제기간에 수확해 큰칭거미 새우를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 양식 창업하는 이범석 (38)

전남 고흥 청년수산 대표.
"전남대 양식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티지에서 생활하다가 귀어를 결심하고,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원다리새우 양식에 나선 조현곤 (52)

경남 고성 인영해새우 대표.
"교육을 수료한 후 250평의 양식장에서 원다리새우 2.2을 출하했습니다. 올해는 1,500평으로 늘려 20t 출하와 함께 실내그린 양식장을 건립해 연중 출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양식 창업, 이제 같이 고민합시다. 후배님들.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내 One-Stop 친환경양식창업지원센터가 올 상반기 양식업 창업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및 창업 지원, 컨설팅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KFPA 한국어촌어항협회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romotion Association

문의처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055-642-5702~4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062-220-0555